

지역 발전 위한 의정활동 '분주'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각종 연구용역·토론회·견학 등 추진

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10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소속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2008년 전북지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탄생했으며, 올해의 경우 5개 단체를 운영 중이다.

관광거점도시실현연구회(회장 김성규 의원)는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연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스포츠를 통한 균형 발전이라는 체육분야 국정과제에 맞춰 '스포츠 관광'을 주제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한 중간보고회를 오는 11일 가질 예정이다.

로컬라이징연구회(회장 최서연 의원)는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도시재생거점시설 등의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회는 용역과 각종 견학



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등의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선진 사례에 대한 발전 방향 제시를 기대하고 있으며, 오는 16일 중간보고회를 예정하고 있다.

의회는 기본 기능인 의원입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 사례 연구와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한 민생조례 관련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주시 재정사업

과 조례 연계에 대한 분석,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도시공간연구회(회장 김원주 의원)는 전주시 도시공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 환경 정비와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재건축, 재개발 등 현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할 계획이다.

전주비전연구회(회장 신유정 의원)는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대비해 전주형 특례사무 발발을 추진해 지난달 최종 보고회를 연 바 있다. 연구회는 발굴한 전주형 특례사무에 대한 추가 분석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시 발전을 위해 12대 의회 들어 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 많은 연구 활동을 추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우수 도서관 정책' 전국에 알린다

전주도서관 체험형 연수프로그램 지속 운영

전주시가 올 하반기에도 곳곳에 조성된 특화도서관과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등 우수한 도서관 정책을 전국에 알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전국적으로 주목 받는 '책의 도시' 전주의 우수한 도서관 정책을 알리기 위해 하반기에도 '전주도서관 체험형 연수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주도서관 체험형 연수프로그램은 전주만의 특색있는 도서관 정책을 배우기 위해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 등에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 도서관 등의 견학 문기가 쇄도하고, 타 지역 도서관 관계자들의 직무연수 과정 개설 요청에 의해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의 우수한 도서관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사서 등 도서관 관계자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연수 참가자들은 다가 여행지도서관과 동문헌책도서관, 연화정 도서관 등 전주만의 특색이 담긴 특성화도서관과 서화동예술마을, 전주한옥마을 등 지역문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오는 9월 7일에는 전주시·군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의 '찾아가는 시군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해 도서관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후 총 4차례의 연수가 예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연수프로그램에는 경남 진주시립도서관 관계자, 목포교육지원청 소속 순회사서 및 교사, 고양시 도서관센터, 대전광역시 소속 도서관 관계자 등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 연수에서는 전주도서관 정책 소개와 더불어 특성화도서관 탐방이 이뤄지게 된다. 특성화도서관 탐방의 경우 도서관 해설사와 함께 △전주시 대표도서관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한옥마을 여행자를 위한 '다가여행자도서관'과 '한옥마을도서관' △옛 기억을 담은 '동문헌책도서관' △역사공인 연못 한가운데 위치한 '연화정도서관' △시집 전문도서관인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예술전문도서관인 '서화동예술마을도서관' 등에서 주제별 북큐레이션과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도서관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선도 지자체로서 전주 도서관의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속해서 교류할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를 다시 찾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세계 잼버리 대원들 전주서 실내행사 즐겨

태풍 '카눈' 영향... K-POP · 문화예술공연 · 김장담그기 등 다양한 한류 문화 체험

전주에 머무는 세계 잼버리 대원들이 제6회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인해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실내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시는 10일 제6회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함에 따라 잼버리 대원들의 야외 프로그램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은 전주실내체육관, 전주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실내에서만 진행됐다.

먼저 전주실내체육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포르투갈과 말레이시아에서 온 잼버리 대원 9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석치기와 한복공예 등 10여 종의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오후 2시부터는 K-POP, 비보이, 재즈댄스 공연이 펼쳐져 잼버리 대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다.

이와 함께 전주대학교와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는 전주시립예술단의 공연과 K-POP 함께 즐기기, 비보이 공연,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 등이 각각 진행



전주에 머무는 세계 잼버리 대원들이 제6회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인해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실내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돼 1120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에게 한국의 맛과 맛을 선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태풍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오는 11일로 예정된 페

영식과 K-POP 콘서트에 대원들이 참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지역 번개탄 판매업소 대상 번개탄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추진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보영)는 7월과 8월 두 달간 일산화탄소 자살 예방을 위해 전주지역 번개탄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번개탄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개탄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 수단이지만 처단이 가능한 수단이기도 하다. 보급되는 번개탄안전보관함은 번개탄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낮추는 안전장치로, 번개탄을 판매 진열대에 두지 않으며 보이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다.

보건소는 번개탄안전보관함 보급캠페인을 통해 보관함 보급과 더불어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번개탄 판매업소에서 구매자에게 사용 용도를 묻고 직접 꺼내주는 방식으로 구매 방해 요소를 만들어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관련 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번개탄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68개 번개탄 판매업소에 번개탄안전보관함을 보급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 8일 전주지역 장례식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용품 없는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한 제2차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위한 간담회 가저

전주시는 지난 8일 전주지역 장례식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제2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올 하반기 '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사업'에 대한 설명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대신해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례식장 대표들은 다

회용기 사용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 문제와 위생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들의 상조회사 및 직장에서 제공되는 1회용품에 대한 선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7월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고, 향후 검토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